

# 메가어스 엑스포 ‘감사 구멍’...전북도 뒷집

쫓겨간 지원에 감사·사후 검증 부재  
수백억 홍보...실제 성과 확인 미흡  
불참 기업 제재·현장 운영 체계 허술  
도 “총괄 정산 한계” 제도 보완 검토

(4)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난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현재 난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논란, 특정 업체 독식 의혹 등의 각종 문제점을 10여 차례 집중 보도한다.

/면접자 주

13일 제보와 정치권, 경제계 등에 따르면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를 둘러싸고 40% 수수료 공제와 유령 부스 방지 등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지만, 정작 도비 집행 점검과 출연기관 지도 권한을 전 전북도청은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 컨트롤타워야 할 전북도가 산하기관과 특정 민간 대행사의 ‘감사 사각지대’를 수년째 방치하면서, 도민 혈세 낭비와 행정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참가 기업 대표 A씨는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도청과 기관들의 치적 쌓기와 실적 채우기용 들러리만 선 기분”이라며 “기업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정작 현장 관리는 손을 놓아버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도 소관 부서는 이번 행사가 지자체 주관인 아닌 기관별 개별 참가 사업이라 총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도청 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전북대창업지원단 등 도내 3개 기관이 자체 참가한 사업”

이라며 “불참 기업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으나 내년에는 다른 기업의 참여 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페널티 규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대대적으로 발표되는 ‘수백억 원대 MOU 체결’ 홍보 실적을 그대로 수용해 왔으나, 정작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공식 통계나 관리 시스템은 갖추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MOU가 당장 그해에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려오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성과가 집계되지는 않는다”며 사후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 감사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기획적 예산 집행 구조’를 도가 수년째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

통상 공공기관 사업은 지방계약법상 사전 심사와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행사는 특정 대행사가 현직 법인을 통해 박람회 열고 기관들이 ‘참

가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대주는 간접 지원 방식을 취해 엄격한 일상감사와 공모 규정을 피해 갔다.

도 관계자는 “참여 기관마다 예산 주머니가 다르고 단위 사업별로 정산과 점검이 이뤄진다”며 “여러 기관 사업이 모이다 보니 엑스포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정산이나 종합 감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북도는 이번 행사가 특정 업체의 독점이나 편법이 아닌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업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창업기업을 돕기 위해 예산을 매칭한 사업”이라며 “현장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호치민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간접적인 성과도 있는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축제는 확대 서툰 ‘한 줄 대기’ 임실N치즈축제 교통 불만 폭발

① 한때 전국 대표 축제를 자부하던 임실N치즈축제가 날이 갈수록 본질을 벗어나 교통, 인프라, 먹거리, 예산 등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본보는 치즈축제가 다시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전북도는 물론 전국민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과 향후 대책, 고질적인 문제점 등을 향후 3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한다.

/면접자 주

올해 임실N치즈축제에서 셔틀버스 탑승을 기다리던 방문객이 장시간 대기과 승차장 혼잡을 토로하면서 교통 운영의 적절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축제 무대를 임실읍까지 확대했지만, 외곽 주차장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이동 체계가 방문객 수요에 맞게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다.

13일 임실군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셔틀버스 배차 문제에 대해 의견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박모씨는 올해 축제 기간인 지난 9일 오후 1시 10분 제8주차장에 주차한 방문객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이동할 당시 셔틀버스가 5명 또는 10명씩 승객만을 태우며 좌석으로만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객들이 강한 햇빛 아래 승차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이 길게 이어졌다는 것이다.

축제 관람을 마친 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박씨는 하나의 승차함에 많은 방문객이 한 줄로 기다렸으며 승차장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뿐 아니라 귀환 과정에서 대기 인원이 몰렸다는 주장이다.

교통을 겪은 박씨는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목적지별 승차 공간 분리와 주차장별 탄력 배차다. 주차장별로 승차함을 나누거나 이동 동선이 비슷한 주차장을

묶어 4~5개 승차함을 운영하고, 주차장 전담 차량과 지원 차량을 구분해 배치하는 제안이다.

이는 단순히 버스 대수를 늘리는 문제와 구분된다. 노선별 이용객 수와 차량 회전시간에 맞춰 배치했는지, 귀환객을 목적지에 따라 분산했는지 등 운영 구조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축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치즈테마파크와 임실을 일원에서 열렸다. 처음으로 개막식을 임실을 시내관에서 개최하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축제를 표방했다. 공간 확대로 이동 수요가 달라진 만큼 셔틀 노선과 승차장 운영도 그에 맞게 설계됐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셔틀 운영은 지난해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향신문은 2025년 축제 개막 직후 일부 방문객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 30분 이상 기다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임실군은 예상보다 많은 인파로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차량 증편과 주차장 추가 확보 등 대응에 나섰다 밝혔다.

올해 게시글만으로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혼잡이 반복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작성자가 정확한 대기시간을 밝히지 않았고, 전체 민원 건수와 노선별 운행 실적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해 드러난 이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고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핵심 확인 대상은 시간대별 차량 배치와 실제 운행 간격, 주차장별 대기 인원, 귀환 승차함의 분산 운영 여부다. 현장 혼잡이 발생했을 때 지원 차량 투입과 안내 인력 재배치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축제장을 넓히는 것만큼 방문객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올해 제기된 셔틀 불편에 대해 임실군과 축제 제전위원회가 운행 자료와 현장 대응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최준호 기자 /한병열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 100일...“군민 체감 변화로 대도약”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차근차근 다져올린 성장 기반과 현안 해결 성과를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군수는 13일 오전 고창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고창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오래된 현안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을 설명했다.

심 군수는 가장 큰 성과로 ‘군민활력 지원 지급’을 꼽았다. 지난 9월1일부터 고창군민 5만415명 전체에 군민활력지원금으로 1인 30만원씩 총 150억원이 지급됐다. 심 군수는 “고창군은 작년과 올해 외부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순수 군비만으로 활력지원금을 지급해 오면서 안정적인 재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활력지원금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업그레이드해 이르면 내년년부터라도 ‘고창형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고창군청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민활력지원금·산단 공사·서해안철도망 국가계획 반영·관광 등 100일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창군>

고창신활력산업단지의 기업 가동도 순조롭다. 현재 산단내 주요 기업들의 사업장 공사가 한창이며 건설인력 수백명이 고창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심 군수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서해안철도망 국가계획 반영과 노을대교 조기착공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계획도 밝혔다.

심 군수는 “최근 호남 서해안지역이 해상풍력이나 원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들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서 충분히 철도망 계획반영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노을대교 역시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 설계가 한창 진행중으로,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제53회 고창모양성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올해 모양성제는 방문객이 직접 성곽을 걷고, 체

험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참여형 역사문화축제로 준비중이다.

심 군수는 “드론라이프쇼와 공군 특수비행팀의 에어쇼, 전국노래자랑 등 대규모 볼거리를 더해 군민들과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겠다”며 “가을 고창 모양성에서 시·공간을 넘어 조선시대를 체험하고 고창꽃정원까지 둘러보면서 오래 머물며 즐기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민주당 신천지 집단 입당 확인...당내 갈등 뇌관

전대 의혹 조사 결과 최고위 보고  
공개 범위·후속 조치 지도부 고심  
계파 갈등 악화...후폭풍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신천지 신도 집단 입당'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최고위원회의

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관련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고, 내용 공개 수준과 후속 대응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조만간 이와 관련된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당대표 취임 이후 이에 대한 박선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이중 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등에 대해서 조사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박 최고위원이 맡아서 조사했고, 그것이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에 신천지 신도가 집단 입당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지도부와 현 지도부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AI 입은 K-푸드 미래산업 거점 도약

2027년 정부예산 15억5천만원 반영  
생산 100배 확대 대체식품 국산화  
스마트 공유공장 구축 전주지 지원  
맞춤형 푸드·피지컬AI 제조혁신

전북도가 풍부한 농생명 자원과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발판 삼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푸드 미래산업 육성에 나선다. 도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설계비 2억 5,000만 원(총사업비 100억 원)과 식품특화 스마트 공유공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피지컬 AI 데이터셋 설계비 10억 원(총사업비 88억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주요 사업 추진의 마중물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북이 정부 '5곡 3특' 성장엔진의 농생명바이오 분야로 지정되면서 맞춤형 케어푸드 육성에도 탄력이 붙었다. 이를 토대로 도는 ▲푸드테크 대체식

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식품특화 스마트 공유공장 구축 ▲5곡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맞춤형 케어푸드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구축 등 4대 핵심사업을 축으로 원료·소재부터 제품화·양산, 맞춤형 식품, AI 제조혁신까지 아우르는 K-푸드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대 콩 생산지라는 강점을 살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산콩의 추출·분리·정제·건조 전 공정을 잇는 산업화 실증 인프라를 마련한다. 기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연구·실증 기능을 산업화와 양산 단계까지 넓히고, 식물성 분리단백 생산 규모도 하루 10kg에서 1,000kg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체식품 핵심소재의 국산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원료 보관·전처리부터 제조·가공, 포장, 보관, 출하까지 식품 생산 전 공정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공동 생산플랫폼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선다.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플드체인, 물류

관리, 생산공정 표준화, HACCP 대응 기능 등을 갖춰 '제품개발 → 시험생산 → 양산 → 유통·수출'에 이르는 기업 성장 전 과정을 뒷받침하고,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의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실증성과도 접목한다. 전북의 농생명자원과 마이크로바이옴 등 바이오 자원을 활용해 고령친화·특수영양·특수의료용 맞춤형 케어푸드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고, R&D에서 실증·사업화까지 한 흐름으로 잇는다. 이를 위해 기업협력 산업생태계 조성 및 사업화 실증, 고령친화 골강강 소재 개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제조·실증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존 공유공장과 패키징센터에서 카메라·3D 센서로 생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5G 특화망·디지털트윈·로봇과 결합한 피지컬 AI 학습·실증 환경을 갖춘다. 자율이송로봇과 양팔로봇 등 다양한 장비를 실제 제조공정에 투입해 식품 제조현장에 적합한 범용 피지컬 AI 솔루션을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고도화', '스마트 공유공장', '맞춤형 케어푸드', '국가식품클러스터 피지컬 AI' 등 4대 사업은 따로 움직이는 개별사업이 아닌, 하나의 K-푸드 산업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전북산 농생명자원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만들고, 스마트 공유공장에서 제품화와 양산으로 연결하며, 맞춤형 케어푸드로 새 시장을 열고, 피지컬 AI로 제조현장까지 혁신하는 구조다. 도는 이를 통해 원료·소재개발 → 제품화·양산 →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 AI 제조혁신 → 국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K-푸드 전주지 가치사슬을 전북에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풍부한 농생명자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비롯한 식품산업 인프라를 함께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와 함께 대체식품, 스마트 공유공장, 맞춤형 케어푸드, 피지컬 AI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연결해 전북을 대한민국 K-푸드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도, 농생명산업 AI 접목·기술혁신 '속도' 박희승 "남원·장수 송전선로 재검토해야"

전북도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농생명산업의 미래 혁신전략을 모색하고 농식품기업의 기술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의 농생명산업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기업 현장의 기술 수요를 연구개발과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위원과 농생명 혁신기관 관계자, 농식품기업 대표, 애로기술 컨설팅 전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와 전문가 특강,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먼저 농촌진흥청 신재훈 과장은 '농생명산업의 AI 활용과 미래 혁신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인공지능 활용 방향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조이리브루어리, 숨단지발효연구소, 유화당 등 도내 농식품기업 3개사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주류 제조공정 개선 ▲발효식품 미생물 분석 및 품질균일화 ▲가공식품 유통 안전성 확보와 제조공정 표준화 등 기술에로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기업별 기술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연구, 연구개발 후속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 농식품기업 714개사를 대상으로 애로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부터 실증연구,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전주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기업 현장의 기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과 신규사업 기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광양에서 구례·남원을 거쳐 장수로 이어지는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결과지를 조기 확정하려 하고 있는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에게 송전선로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전력 생산은 지방이, 소비는 수도권에 하는 구조에 첨단산업 수요까지 수도권에 얹고 그 간극을 수백 km 송전선로로 메우는 공급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한전은 지역별 요금제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데도 송변전 투자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두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9월 29일 전력망 혁신대



박희승 의원

책에서 "새로 짓지 말고 있는 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비증설 대안(기존 망 활용·유연전송·ESS)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여는 등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송전선로가 추진된다면 전남광주 광양에서부터 전북의 남원과 장수를 비롯한 경과지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부담만을 떠안게 된다. 박 의원은 "비증설 대안이 재생에너지 접속에만 적용되고 수도권행 신규 선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묻고 "경과지 확정 절차를 중단하고 혁신대책을 반영해 노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진행 중인 345kV 신규 노선별로 중용

전북, 올림픽 유산 활용 모색...스포츠 정책 연계

포럼 참가 국내외 사례 분석  
사후 활용·도시재생 방안 살펴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2026'에 참가해 국내외 올림픽 유산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 스포츠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더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올림픽 레거시'를 주제로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과 도시 재생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올림픽 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지역 스포츠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계 스포츠 소외국 청소년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평창 '드림 프로그램' 등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



<사진=전북도>

와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올림픽레거시 분야 학계 전문가 및 개최도시 관계자들과 교류를 확대해 향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 올림픽유치단장은 "올림픽 레거시는 단순한 시설 보존을 넘어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스포츠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박지원, 김제·부안 교육환경 특교 26억 확보



박지원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제와 부안지역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26억 5,700만 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김제시와 부안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에 투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교부금 추진 사업은 ▲부안초 강당 리모델링(22억 6,900만 원) ▲김제중앙초 분관 및 후관 외벽 보수 공사(1억 4,300만 원) ▲김제중앙중 교사동 외벽 보수 공사(2억 4,500만 원) 등이다. 그동안 김제중앙중과 김제중앙초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외벽 균열 및 마감제 탈락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부안초 역시 노후된 강당 시설로 인해 체육

활동 및 실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교부금 확보를 통해 해당 학교들의 시설이 전면 정비되며 학생과 교

사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다채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제·부안의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환절기 감기 예방법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감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온도와 습도 적절히유지  
온도 20~22℃, 습도 50~60%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30초이상 손 씻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 ‘2026 미래문화축제 팔복’ 17~18일 개최

### 전통문화·예술·기술 만나는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전주의 전통문화와 미래 첨단기술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을 연다.

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2026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발·창작해 온 미래문화 콘텐츠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전주의 전통문화가 새로운 기술과 창작방식을 만나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다.

‘상상 과부하’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서는 전통과 기술, 예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과 전시를 비롯해 창업지원 팝업, 시민 참여 프로그램, 체험·판매 공간 등 팔복예술공장 곳곳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축제에서는 전통공연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공연인 ‘미래당산: 이팝모리’를 눈여겨볼 만하다. 전통연극의 형식과 현대적 공연예술을 바탕으로 인터랙티브 시스템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전통예술을 새로운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2026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개최한다 <사진=전주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공연은 이틀간의 축제 기간에 이어 오는 11월 7~8일, 14~15일까지 총 6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

또한 전통문화 기반 아트엔테크 프로젝트 공모전 선정작 9점을 선보이는 ‘팔복 리부트’ 전시도 마련된다.

시와 재단은 올해 공모를 거쳐 신규 지원 7팀과 후속지원 2팀을 선정했으며, 전통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요소를 새로운 기술과 창작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개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창작 결과물을 통해 전통문화가 기술과 예술을 만나 새로운 콘텐츠

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축제에서는 미래문화콘텐츠 아카데미의 교육생 결과물을 선보이는 ‘본질’ 전시도 진행된다. 신기술 기반의 미디어아트 제작 교육을 통해 창작 역량을 키운 교육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며, 기술을 배우는 데서 나아가 전통문화의 요소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창작·전시로 이어지는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시민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만사OK’에서는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문화예술 결과물을 전시하고, ‘창업지원 팝업스토어’에서는 창업지원 및 기업육성 사업 참여자들의 창업 아이템을 선보인다. 또, 팔복동 유희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고로케’도 축제 기간 홍보·안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과 축제를 연결한다.

축제 현장에서는 전시와 공연 외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야외공간을 중심으로 가족 대상 공연과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이 운영되며, AI 포토부스와 캐릭터 에어벌룬 포토존 등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은지 기자

## 전주시-국민연금공단,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도와

### 공공기관 현장 중심 취업 지원 국민연금공단서 취업 특강 개최 재직자 생생한 실무 이야기 공유

전주시가 국민연금공단, 원광대학교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와 손잡고 지역 청년들의 금융·공공기관 취업을 돕고 나섰다.

시는 13일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에서 전주시역 미취업 청년(만 18~34세) 3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재직

자 특강 ‘청년잡담(JOB談)’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전주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발맞춰 지역 내 금융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무엇보다 시와 국민연금공단, 원광대학교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가 이번 청년잡담을 통해 지자체-공공기관-대학이 함께하는 청년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참여 청년들은 국민연금 제도 및

공단 소개를 시작으로 채용 제도와 면접 노하우 등 실질적인 채용 실무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어 연차별 국민연금공단 재직자와의 대화를 통해 실무 적응기와 다양한 업무 경험, 조직문화 등 자유로운 소통을 하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종료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사옥을 직접 탐방하며 청년들이 실제 근무 환경을 체험하며 취업 의지를 다지기도 했

다.

이진선 전주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 시너지 효과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정례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덕진구, 관용차 떠난 자리 민원인 품으로!

### 상시 주차차량 60여대 외부 주차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전주시청사에 이어 덕진구청사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갖추게 됐다.

전주시 덕진구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상주차장에 민원인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청사 주차환경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덕진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가 어렵고, 이 중주차와 출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청사 지상주차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주차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관용차량 등 상시주차 차량을 외부로 옮기고 청사 지상주차장을 방문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선은 민선9기 전주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시민 중심 행정의 후속 조치로, 앞서 시청사의 경우에도 관용차량과 직원차량 등을 외부주차장으로 옮겨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구는 우선 민원인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관용차량 등 상시주차 차량 6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인근 외부 주차장을 확보하고, 청사 지상주차장 65면을 방문 민원인 중심으로 재배치해 주

차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주차구획선을 새로 도색해 민원인 주차구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차단기와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무단·장기 주차 방지 등 차량 출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사 내 주차 안내표지와 유도표지를 정비해 방문객이 달린 주차장 이용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덕진구청사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민원인과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민원 차량은 기본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가 길어질 경우 방문부서나 안내데스크에서 추가 등록해 1시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시간 외인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와 주말·공휴일에는 무료 개방된다.

구는 앞으로 새롭게 마련한 주차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차량 흐름과 시간대별 주차 수요, 시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보완해 민원인 중심의 주차환경 조성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세권 덕진구청장은 “청사를 찾는 시민들이 주차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인 중심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제30회 전주시 노인의날 기념식 열려

#### 올해 100세 윤복성 어르신 청려장과 축하 꽃다발 선물

100세 시대를 맞아 전주시역 노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함께 염원하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주시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홍성언)는 13일 전주학성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시·도의원,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표창수상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전주시 노인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조지훈 전주시장은 올해 100세를 맞이한 윤복성 어르신(남, 삼천3동)에게 무병장수와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을 전달했다. 홍성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도 축하 꽃다발을 전하며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정혜민 기자

### 덕진구, 가을철 산불 대비 총력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운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강세권)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덕진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앞두고 관련 인력 확보 및 산불감시·진화 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부터 산불 감시와 진화를 위한 근로자 모집에 착수했으며,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실시되는 필기와 체력 측정 시험 등을 거쳐 총 96명의 지원자 중 68명의 산불예방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 ‘제10회 전주시 인문주간’ 출발

전주시가 음악과 인문학이 융합된 인문학 특강과 콘서트를 시작으로 6일간의 ‘제10회 전주시 인문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시는 13일 아중호수도서관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챙김의 인문학’을 주제로 한 ‘제10회 전주시 인문주간’의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 인문주간은 조현 전 한겨레 기자가 ‘나답게 아름답고 행복해 지는 법’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강 이후 이어진 인문콘서트에서는 오은하 파라디소 밴드가 시민들에게 치유의 음악을 연주하며 음악과 인문학을 결합한 새로운 인문학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인문주간 행사는 이날 개막식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인권침해 없는 일터 만들기 나서

전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충처리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시 산하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의 고충처리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무 숙련도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 과정을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분리된 고충처리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 본청과 사업소는 물론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고충처리담당자의 초기 대응 및 중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림으로써 조직 내 인권침해 및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 도서관과 책문화공간 잇는 ‘전주서 스테이’ 호응

#### 지역 상생 도서관 여행

전주시가 책과 함께 머물며 독서와 휴식을 즐기는 체류형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주여행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운영된 ‘전주서(書) 스테이’에 타지역 책여행자를 중심으로 총 62명이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서(書) 스테이’는 전주의 특색있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는 숙소, 동네책방, 베이커리, 음악 등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공간을 연계해 독서와 여행, 체험과 사색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반나절 일정의 ‘책나절’과 1박2일 일정의 ‘책한밤’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책나절’은 책과 문장, 가차, 음악을 주제로 전주의 도서관과 문화공간을 찾아 깊이 있게 책을 읽고 참여자간 독서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책한밤’은 책 읽는 숙소에서 하룻밤 머물며 독서와 사색을 이어가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오는 16일 마지막 일정을 앞둔 책나절 4차 프로그램은 ‘인생 그림책산책’을 주제로 진행된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중심으로



로 한 전주의 문화적 자원을 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책의 도시 전주’ 브랜드를 강화하고, 방문객이 전주에 더 오래 머물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은지 기자

# 전북농협, 찾고싶은 농촌 공간 조성

## 구천동 농협과 무주 비례마을에 1,000만원 지원…환경 개선 추진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13일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함께 무주군 설천면 비례길 32-13 소재에 위치한 비례마을 경로당에서 '희망 농촌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마을 환경 개선과 공동이용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고 밝혔다.

희망농촌 정비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

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1,265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농협중앙회가 전체 사업비의 80%(1,0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참여 마을이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농촌 정비사업은 농촌 마을의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편의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훈 본부장은 “우리 전북농협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금차 희망 농촌



정비 사업도 그 일환이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민전심의 가치 전파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전북농협>

/최준호 기자

# 전북개발공사, 업무 속 갈등 ‘불씨 잡기’

## 신뢰 기반 소통 임직원 갈등관리 교육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지난 13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절차와 실제’를 주제로 2026년 임직원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사 업무 속 갈등을 유형별로 짚어 갈등관리 관점을 ‘사후 해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공사 갈등관리계획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사업계획·임시 단계에서 주민에게 정보를 먼저 알리는 시

기와 대상을 정하고, 갈등영향분석으로 잠재 갈등 요인을 미리 진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갈등 상황 속 민원 응대와 관계 기관 협의 요령도 함께 다뤘다. 공사는 이러한 신뢰 기반 소통으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관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갈등은 불씨일 때 잡아야 하며, 그 출발점은 주민과 먼저 소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개발공사>

# 국민연금, 통화정책 분석 AI로 ‘10분 만에’

## 기준 8시간 걸리던 업무시간 98% 단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글로벌 AI·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공동으로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리서치 AI 에이전트 개념검증(PoC)’을 통해 통화정책과 기업실적 분석 자동화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성과 공유회를 열고 개념검증 결과와 향후 기금운용 업무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투자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운용역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핵심 과제는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분석, 생성형 AI 기반 기업실적 분석, 주식시장 리서치 통합분석 등 3개 분야다.

이 가운데 통화정책과 기업실적 분석 등 2개 과제의 개념검증을 완료했다.

통화정책 분석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의 정책 결정문과 기자회견답회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요약한다.

이어 이전 발표와 비교해 정책 기조와 주요 문구의 변화를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운용역이 직접 수행할 경우 통상 8시간가량 소요되던 분석업무를 약 10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업무

시간이 97.9% 줄어들고 처리속도는 기존보다 48배 빨라진 것이다.

기업실적 분석에서도 AI 에이전트가 기업별 실적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 분기별 변화와 기업 간 전망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실적 전망을 요약하는 체계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여러 운용역이 분기마다 약 180시간을 투입하던 반복적인 분석업무의 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념검증은 공개 데이터만 활용하고 내부 기금운용 정보나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안 위험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성과는 실제 기금운용 업무에 전면 도입하기 전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한 단계다.

향후 AI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잘못된 정보나 해석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공단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식시장 리서치 통합분석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대체투자 자산의 세무·회계 검토 등으로 AI 활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개념검증을 통해 AI를 활용한 기금운용 리서치 업무 효율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AI 활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용역이 투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 폭염에 ‘레드향’ 터짐 ↑…피해 줄이기 최선

### 농진청, 현장 기술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열대야, 불규칙한 강수로 고급 감귤 품종인 ‘레드향’의 열매 터짐 피해가 크게 늘어나면서 농촌진흥청이 재배 관리 기술 보급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레드향연합회와 공동으로 레드향 열매 터짐(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배 관리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레드향은 당도가 높고 풍미가 뛰어난 감귤류 품종이지만 껍질이 얇아 열매가 쉽게 갈라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최근 여름철 고온과 열대야가 잦아지고 강수 양상이 불규칙해지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레드향 열매 터짐 비율은 평년 15~20% 수준이었으나 폭염이 심했던 2024년에는 38.4%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30.6%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10월 초 기준 약 20%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다.

열매 터짐은 과실이 급격히 커지는 8~10월에 집중된다.

고온으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토양수분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양분 공급이 불균형해지면 열매가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무의 생육이 지나치게 왕성하거나 열매가 과도하게 달린 경우에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농진청은 피해가 컸던 농가의 재배 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정리해 온도·물·토양·양분·나무 관리 등 5개 분야의 핵심 기술을 제시했다.

우선 여름철 시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천창과 측창을 충분히 개방하고 차광망과 송풍팬 등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7~10월에는 시설 내부 온도를 낮 31도 이하, 밤 24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 관리도 핵심이다. 열매가 커지는 시기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하기보다 적정량을 매일 나눠 공급해 토양수분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 한다. 토양 관리에서는 나무 아래 풀을 재배하는 초생재배나 구멍이 있는 피복재를 활용해 지온 상승을 억제하고 뿌리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열매껍질 발달에 필요한 칼슘과 붕소 등 양분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나무의 생육 상태에 맞춰 착과량을 조절하는 관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이번 안내 자료를 제주 지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하고 열매 터짐 피해가 심한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사진=신협중앙회>

## 신협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돕는다

### 시설자금 최대 85% 대출

신협이 농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금융지원에 나선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85%까지 대출하고 이자 부담도 낮춰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농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 업무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전력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금융기관이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차보전을 통해 주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협약에 따라 신협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햇빛소득마을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최대 85%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되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실제 대출 이자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마을은 인근 지역신협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원은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기 자금 확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 비중이 높은 전북에서도 주민 공동 발전사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외부 사업자 중심의 발전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지원 확대가 곧바로 안정적인 주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발전량과 전력 판매가격에 따라 사업 수익성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실제 이차보전 규모와 지원 기간, 대출 상환 조건, 주민별 예상 순수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력망 연계와 사업 부지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선도모델 중 하나인 에너지 분야에 신협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 익산 청년창업의 열정 ‘한자리에’

## 16~17일 청년창업 페스타 개최

익산 청년창업가들의 참신한 제품과 도전·성장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만나고,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청년창업 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오는 16~17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림산업 퍼스트키친 야외광장에서 ‘2026 익산대전청, 청년창업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NS 푸드페스타 2026 익산’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예비창업자와 시민이 함께 창업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장에는 청년창업기업 제품 홍보·판매대와 시민 참여형 체험존, 창업정보 제공존, 창업스토리관 등 총 28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창업스토리관’에서는 참여기업 14개사의 창업 계기부터 도전 과정, 성장 이야기를 소개한다.

시민들은 청년창업가들의 경험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에 필요한 동기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제품 홍보·판매존에는 지역 청년창업기업 14개사가 참여해 익산의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비롯해 디저트, 건강식품 등을 선보인다.

방문객들은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들은 소비자 반응을 확인해 제품 개선과 향후 판로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

청년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NS홈쇼핑 상품기획자(MD)가 참여하는 입점 상담회를 통해 유통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지원기관들은 지원사업과 정책 정보를 안

내하며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원광대학교 창업동아리와 지역 학교 등이 참여해 향수 만들기, 오토마타 제작, 익산고구마 바질 케이크 만들기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사진 촬영·인화 서비스와 창업 퀴즈 톨렛, 행운 에어볼, 스탬프 챌린지 등 방문객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창업스토리관을 통해 청년창업가들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청년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예비창업자들의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주상의 - 전주대 평생학습 및 기업 상생 도모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와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13일 지역 평생학습과 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과 기업 현장을 하나로 잇기로 했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 기조에 맞춰, 디지털 전환 인프라가 취약한 도내 기업의 실무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AI를 활용한 기획서 작성, 데이터 분석, 홍보 콘텐츠 및 업무 대시보드 제작 등 현업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실무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정태 회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교육청, 하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

초등 43곳·중등 29곳  
결원 3분의 2 지정  
23일까지 신청 접수



전호성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특성과 교육 여건에 맞춘 학교장을 임용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넓히고자 13일 본청 2층 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 업무담당자와 교직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요 제도 내용과 지원 자격, 신청 절차를 공유하고 내부형·개방형 운영학교 우수 사례를 점검했다. 2027년 3월 1일 자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43개교, 중등학교 29개교로 정년퇴직과 중임만료 등 교장 결원 학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중 공모제 실시학교를 최종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 심사를 거쳐 2027

년 3월 1일자로 교장을 임용할 계획이다. 김항윤 교원인사과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높여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가 지역과 학생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제20대 총장 선거 12월 1일 실시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제20대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가 오는 12월 1일 치러진다. 13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차기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선거일 공고는 내달 11일까지 이뤄지며 선거인명부 작성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본후보자 등록은 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접수하고, 등록 마감 직후인 17일 오후 6시 20분 기호 추첨을

거쳐 18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어 선거벽보 부착과 공보 발송 등을 거쳐 투표안내문은 내달 24일까지 선거인에게 전달되며, 투·개표 참관인 신고를 끝으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선거 당일인 12월 1일에는 투표 전 합동연설회를 연 뒤 1차와 2차, 결선 등 최대 세 차례 투표를 거쳐 차기 총장 임용후보자를 최종 선출한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149억 규모 교육부 '글로벌랩' 선정

9년간 국비 135억 확보  
기후테크 거점 구축

전북대학교 기후테크연구소가 교육부의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벌랩(Glocal Lab)'에 선정돼 전북 산업 기반과 연계한 기후테크 연구거점 구축에 나선다. 글로벌랩은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지역 기초연구와 혁신

을 이끄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연구소는 이번 선정으로 9년간 국비 135억 원을 포함한 총 14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기존 환경 연구 역량을 기후·에너지·농축산·자원순환·인공지능(AI) 분야로 넓히고 기초연구부터 현장 실증까지 이어지는 연구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소는 청정기술(Clean Tech)과 농업기술(Agri Tech), 탄소·생태기술

(Carbon & Eco Tech), 지오테크(Geo Tech) 등 4대 핵심 분야 융합연구를 추진한다. 지역 재생자원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과 AI 기반 기후적응형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폐배터리 핵심 광물 재자원화와 초고해상도 기후예측 디지털트윈 연구를 수행해 도내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현장 실증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60여 명의 연구진을 바탕으로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박사후연구

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구 지원체계를 가동해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백기태 기후테크연구소장은 "기초연구부터 현장 실증과 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기후테크 연구 생태계를 탄탄히 다지겠다"며 "지자체와 지역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연구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제4회 고창치유문화축제' 15일 개최

다양한 치유문화 경험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오는 15~19일(5일간)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에서 '제4회 고창치유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고창치유문화축제는 '일상의 해독'을 주제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어가며 고창만의 다양한 치유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축제는 제53회 고창모양성제 기간과 연계해 진행되며, 고창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치유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치유·문화·예술·공예 체험버스 △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일상 속 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진행된다.

특히 토크콘서트에는 법의학자 이호, 약사 이진형, 클래식 해설가 조윤범을 비롯해 고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인플루언서 서로맘 등이 참여해 각자의 분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일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체험하며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털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문식 고창문화도시센터장은 "이번 축제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환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전북체육회>

### 전북선수단 1554명, 제주 전국체전 출격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 1554명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북은 49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주짓수)에 선수 1203명, 임원 351명 등 총 155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도 선수단은 다관왕이 기대되는 수영한다경(전북원스포츠단)과 이서아(전북체고)를 비롯해 사격 추가은(임실군청), 역도 문민희(하이트진로) 등을 필두로 테니스, 탁구 등 전 종목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사전경기에서는 사이클 박혜린(전북체고)과 전하진(전라고)이 나란히 3관왕에 오르는 등 현재까지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확보하며 순항하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대회 기간 선수트레이너(AT)와 스포츠과학센터 전담 인력을 제주 현지에 파견해 선수단 컨디션 조절과 부상 방지 등 맞춤형 밀착 지원을 펼친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전북 체육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 낸 선수단이 정정당당하게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최성민 기자

### 익산예술의전당, 연극·뮤지컬로 12월 '풍성'

'더 드레서'·'마리 퀴리' 공연

익산예술의전당이 오는 12월, 연극 '더 드레서'와 뮤지컬 '마리 퀴리'를 잇따라 선보이며 연말 공연장을 깊은 감동으로 채운다. 익산시는 12월 4~5일 연극 '더 드레서'와 18~19일 뮤지컬 '마리 퀴리'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12월 4~5일 무대에 오르는 연극 '더 드레서'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다. 작가가 세익스피어 전문 극단에서 드레서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영국, '리어왕' 공연을 앞둔 노년 배우 '선생님'과 그의 곁을 지키는 드레서 '노먼'의 이야기를 그린다. 특히 박근형과 정동환이 '선생님' 역으로 출연하고, 오만석이 '노먼' 역을 맡는다. 송옥숙 등 베테랑 배우들이 함께하며, 뮤지컬 '그날들'과 '김종욱 찾기', 영화 '정직한 후보' 등을 선보인 장우영이 연출한다. 이어 12월 18~19일에는 한국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가 관객들을 만난다. 신물질 라뎀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이후 라뎀의 위대성을 알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과학자 마리 퀴리의 갈등과 고뇌를 그린 작품이다. 여성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을 딛고 최초로 노벨상을 두 차례 수상한 마리 퀴리의 삶을 조명하며, 위대한 과학적 성취 이면에 놓인 책임과 인간적인 고민을 그려낸다. 2020년 초연 이후 국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폴란드와 영국, 일본 등 해외 무대에서도 공연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줬다. 예매와 자세한 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연극과 뮤지컬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를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두 작품을 준비했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북현대 U11, 일본 '나이키 엔틀러스컵' 출전

전북현대모터스FC U11 유스팀이 일본에서 열린 '2026 나이키 엔틀러스컵'에 참가해 일본 유소년팀들과 기량을 겨루며 교류를 이어갔다. 나이키 엔틀러스컵은 일본 J리그 명문 구단 가시마 엔틀러스가 주최하는 대회로, 전북현대와 가시마 엔틀러스는 어린 선수들의 국제무대 경험과 문화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교류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총 40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현대 U11팀은 5승 3무 2패를 거둬 일본 유소년팀들과 경쟁력을 입증한 한편, 다양한 경기 운영 방식을 접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선수단은 지난 9일 가시마 엔틀러스와 감바 오사카의 J리그 경기를 관전하고 클럽하우스와 경기장 뮤지엄 투어를 진행한 데 이어, 가시마 유소년 선수 가정에서 생활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언어와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쌓았다. 전북현대 박범휘 U11 감독은 "선수들이 일본의 여러 팀과 맞붙으며 새로운 축구를 경험하고, 홈스테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대회 성적을 넘어 이번 경험이 선수들의 성장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산불은 한순간, 예방은 당신의 손끝에서

작은 실천:  
불씨는 꼭 끄고,  
담뱃불은 주머니에

당신의 숲을  
지킵니다

작은 실수:  
던진 불씨 하나,  
모든 것을 태웁니다

당신의 미래를 잃습니다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신속한 신고, 피해를 줄입니다. **산불 신고 119**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 호남 첫 코스트코 익산점 상생안 확정… 지역과 동행한다

호남권 최초로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이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망라한 실효성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익산시는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가 제출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지난 4개월 간 지역사회와의 동행 방안을 대폭 보강한 끝에, 지난 12일 개설등록증을 최종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코스트코 유치 추진 초기부터 대형 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점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환원되도록 상생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확정된 상생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익산시민 정규직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채용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농식품 및 우수제품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명문화했다. 코스트코 매장 안에서 지역 우수 제품 홍보행사를 열고, 생산 농가와 업체에 실질적인 구매 상담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유통망 진입을 돕는다.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장치도 촘촘히 마련했다. 지역 상권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부 민간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고 대규모 광고나 홍보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익산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 샘고을시장, 16일 야시장… 공연·먹거리 풍성

정읍시 샘고을시장은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 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샘고을 야시장’을 열고 공연과 먹거리가 어우러진 가을밤을 선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문화공연과 시민 노래자랑, 초청가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으로 꾸며진다. 먹거리 공간(부스)도 마련해 시장을 찾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음식을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유지나, 강혜연, 김아영, 박종연, 신나윤, 강기다림 등 초청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공연으로 가을밤의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샘고을시장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즐길 거리가 준비된 만큼 많은 시민이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해경, 선유도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구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12일 갯바위에 고립된 40대 낚시객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군산시 옥도면 선유3구 몽돌해변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오후 5시 바닷물이 차올라 육지와 연결된 토로가 잠기면서 고립됐으며, 오후 7시 31분께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새만금파출소 구조팀을 즉시 현장에 급파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은 갯바위 주변 수심이 낮아 구조정의 직접 접근이 어렵자 동력구조보트를 활용해 구조에 나섰다. 이후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구조된 A씨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갯바위 낚시가 증가하는 가을철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전 물때 및 기상정보 확인 △바닷물이 차오르기 전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갯바위에 고립됐을 경우 무리하게 바다를 헤엄쳐 건너거나 이동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청에 신고한 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은 곳에서 구조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9월 인구 58명 증가

## 올해 1~9월 인구 감소 716명…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 52.0% 줄어

군산시는 올해 들어 인구 감소 흐름이 지난해보다 크게 완화된 가운데,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전월(25만 5,517명)보다 58명 증가한 25만 5,575명을 기록했다

이번 인구 증가는 타 지역(관외)으로 부터의 인구 유입이 견인했다. 9월 한 달 간 군산으로 들어온 관외 전입자는 932명, 전출자는 820명으로 112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특히 관외 인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입 규모도 전월(70명)

보다 42명 늘어나는 등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동 사유별로는 가족과 주거를 중심으로 한 유입이 두드러졌다. 9월 순유입 사유 중 가족 요인이 85명, 주택 요인이 61명을 차지해 가족 결합 및 주거 여건 등에 따른 이동이 전체 순유입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인구 감소 폭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군산시 인구는 716명 감소해, 지난해 같은 기간(1,491명 감소)보다 감소 인원이 775명 줄어들며 감소 폭이 52.0% 완화됐다.

지역의 허리인 청년인구 이탈 또한 완화됐다. 올해 1~9월 청년인구 감소 규모는 732명으로 전년 동기(932명 감소) 대비 200명(26.2%) 줄어들었다.

시는 일시적인 월간 인구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6개월 연속 관외 순유입이 이어지고 전체 인구와 청년인구의 누적 감소 폭이 줄어드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령별·사유별 인구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유입된 청년과 가족 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돌봄 등 정주 여건과 연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해란 인구담당담당은 “9월 인구 증가와 함께 관외 순유입 지속, 올해 인구 감소 폭 완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총력

## 교통망·식품 산업 연계 중앙부처국회 전방위 설득

익산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전북권 균형발전과 도시 생존을 위한 사활을 걸고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

기존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성장의 그늘에 머물렀던 익산시는, 이번 2차 이전만큼은 지역 내 고른 발전과 상생을 위해 익산 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일각에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 방안이 거론되는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시는 호남 철도 교통의 핵심이자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탄탄한 산

업 인프라를 갖춘 익산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반전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28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해 전략을 다듬어왔다. 최근 정부의 기관 통폐합 등 정책 변화에 맞춰 타깃을 재정비하고 기관별 맞춤형 유치 논리를 세웠다.

시는 수도권 중앙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익산 이전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를 설득하고 있다. 농생명·식품·바이오, 환경, 철도·교통 등 익산의 강점 산업과 기능적으로 결합할 때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도 극대화된다는 논리를 제안서에 담아 전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전북도 및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을 통해 정

부와 관계부처에 익산의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다각도로 전달하고 있다.

실제 이전에 대비한 수용 기반도 빈틈없이 다졌다. 공공기관이 결정 즉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며, 대규모 기관의 독립 청사 신축에 대응할 수 있는 넓은 가용부지까지 조사를 마쳤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북 혁신도시에서 소외됐던 익산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도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2차 이전은 익산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익산만이 가진 교통과 산업의 강점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정치권과 하나로 뭉쳐 값진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학생 교육 지원 ‘최선’ 2(題)

## EBS 강사 초청 맞춤형 특강 운영

군산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0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EBS 대표 강사와 함께하는 공부법·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맞춰 진로·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부법 강의에는 EBS 대표 강사진인 심주석(수학)·윤혜정(국어) 강사가 참여한다. 심주석 강사는 개념 학습의 핵심과 문제풀이 전략을 중심으로 수학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며, 윤혜정 강사는 독해력 향상법과 지문 분석·선지 판단법 등 국어 과목의 자기주도 학습전략

을 전달한다.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입시 전문가인 윤윤구 강사가 맡아 대입제도의 변화와 주요 이슈, 전형별 특징 및 지원전략을 설명하고, 학생부·수능·진로를 연계한 입시 준비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고등 학생과 학부모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군산시 ‘공부의 명수’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과목별 학습 요령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 체계적인 진로·진학 설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생활개선研, 장학금 200만원 기탁

군산시는 13일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가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회원들이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사업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연합회는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4개 품목의 영농폐자재 총 154톤을 수거했으며, 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나눔으로 이어가 의미를 더했다.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12개 읍·면·동 지회, 56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농촌 생활의 질 향상 등

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역 사회에 성금과 물품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배지영 회장은 “회원들이 함께 땀 흘려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학생들을 위해 나눔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이에 김재준 군산시장은 “농촌 환경보전에 힘쓰며 지역 교육을 위한 나눔에도 동참해주신 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맛집 후기 올리고 식사비 환급 받자!”

정읍시, 최대 5만원 돌려줘

정읍시가 가을철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고 방문 후기를 공유한 관광객에게 식사비의 50%를 최대 5만원 까지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시는 ‘즐거운 맛과 멋이 있는 도시 정읍, 가을철 맛·인·정 쉼터’를 통해 지역 음식점 이용과 자발적인 홍보를 늘릴 계획이다. ‘맛·인·정’은 ‘맛집 인증은 정읍에서’라는 뜻을 담았다. 관광객이 방문 경험을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해 정읍의 음식점을 알리고, 관광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도록 마련한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정읍지역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을 이용한 관광객이다. 결제금액이 2만원 이상인 영수증 1매당 1인이 신청할 수 있고 참여 횟수는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다.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영수증 금액의

1만원 미만 단위를 제외한다.

참여하려면 음식과 해당 월에 결제한 영수증을 함께 촬영한 뒤 개인 누리 소통망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물은 전체 공개로 설정하고 필수 해시태그 표시(해시태그)를 모두 넣어야 한다.

사진을 게시한 뒤에는 안내문에 있는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 인증 게시물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 안내는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누리 소통망, 참여 음식점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교육지원청, 감사사례 공유·예방교육

감사 지적사례 예방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종일)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행정회계 분야 감사 지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과 8일 감사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일 행정실장, 8일 신규임용 후 5년 이내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실제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지적사례와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사례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법령 미숙지와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 학교 현장에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에도 초·중학교 교무업무 담당자와 교육회합



<사진=군산교육지원청>

교원을 대상으로 교무학사 분야 감사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 예방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감사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학교 구성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행정 오류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최

30건 안건 심사

정읍시의회는 13일 제31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황해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보천교 항일 독립운동 진상규명과 희생자 영령제 추진, 이제 정읍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를 통해 일제에 의해 왜곡된 보천교와 농민들의 항일 독립운동 진상 조사를 촉구와 희생자 영령제 및 역사문화제의 추진을 요청했으며, 이도형 의원은 의원은 ‘정읍시 파크골프장 조성, 이대로 괜찮습니까?’를 통해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 체험시설의 농지전용 등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남희 의원은 ‘정

읍 생태관광,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해야 합니다!’를 통해 내장산, 월영습지, 정읍천 등 지역 특화 생태자원에 역사·문화를 결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읍형 생태관광’ 조성을 제안했으며, 서하경 의원은 ‘부도여인상, 정읍사의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를 통해 백제가요 ‘정읍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부도여인상’의 명칭 재검토 및 심사기준의 다각화와 시정 전반의 양성평등 점검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14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 대전환 위한 민관협력협의체, 속도 높인다

익산시가 민관협력협의체에서 발굴한 분야별 정책 의제를 구체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13일 오후 3시 ‘민관협력협의체 중간 활동 공유회’를 열고, 8개 분야 민관협력협의체의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공유회는 지난 익산대전환회의 이후 분야별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주요 의제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체 간의 의견을 교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각 협의체 위원장은 발표자로 나서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주요 논의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한다. 특히 분야별로 발굴한 정책 의제와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이번 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체별 주요 의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는 11월 최종 성과공유회를 열어 분야별 활동 성과와 정책 제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민관이 함께 발굴한 주요 의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부안군, 내년 예산·공약 이행 점검

## 부군수 주재 간부회의 재정 효율·공약 실행 축제 안전관리 강조

부안군은 지난 12일 방상윤 부군수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2026년 정리추경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 부안 붉은노을축제 준비상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6년 정리추경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부군수는 정리추경과 관련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상황과 향후 집행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한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2027년도 본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했으며, 도비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 반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반영·부족 사업은 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사진=부안군>

이어 지난 8일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민선9기 군수 공약 72건이 최종 확정된 만큼, 각 부서별 실천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각 담당부서에는 공약별 추진일정과 연차별 목표,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특히 국·도비 확보와 사전 행정절차 등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했다.

부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년 부안 붉은노을축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축제는 개·폐막 공연을 비롯해

레드와인 페스타, 부안붉은노을동요제, 재즈 페스티벌, 스카이갤러리, 섀셋시네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군수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장 시설과 교통·주차, 먹거리 위생, 안전사고 예방 등 분야별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사고 없고, 바가지요금 없고, 쓰레기 없는 3무(無)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부안군은 앞으로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선9기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붉은노을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야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추가 모집

### 취약계층 주거 지원

김제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김산시 영아파트와 구산연립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지난 9월에 진행된 예비입주자 모집의 잔여 세대에 대한 추가 모집으로, 총 14세대 규모다.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향후 기존 입주자 퇴거 시 예비입주자 자격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추가 모집공고일(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금

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다.

임대 조건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해, 수급자 기준 임대보증금 186~193만원 대, 월 임대료 3만6천~3만8천원 선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공개추첨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 농가당 최대 40만원

부안군은 축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안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한 농업경영체(농가·생산자단체)이다.

지원항목은 인증 심사료 소요되는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등으로 농가당 최대 40만원까지 실소요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농가들이 인증 비용 부담을 덜고 친환경 축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 고창모양성제 맞이 구슬땀

고창군이 제53회 고창모양성제를 맞아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군민의 손으로 가꾸며 축제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군은 ‘내고장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 집중활동기간(7~14일)’으로 정하고, 관내 읍·면과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유산 환경정비 및 보존·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국가유산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보호하는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2일에는 고창읍 이장단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고창군지회 및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 소속 이장 및 회원 80여명은 고창읍성 일원에서 국가유산 돌봄 활동에 참여해 주변 잡초 등을 정비하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원들은 관광객들의 주요 관람 구역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고창읍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국가유산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군민 스스로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하는 실천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편, 고창군은 2025년부터 관내 136개 기관·사회단체를 ‘내고장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으로 위촉하고, 112개 국가유산을 단체별로 지정해 주민 참여형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백산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탄소중립 교육

부안군 백산면(면장 박선이)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교육 및 역량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 생활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평소 지나치기 쉬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 계기가 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박선이 백산면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추가 모집… 취약계층 주거 지원

김제시는 지난 10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2026년 읍면동 농악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1개 읍·면·동 농악단과 시민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 들녘의 정취 속에서 김제 농악의 맛과 흥을 함께 즐겼다. 행사는 각 읍면동 농악단이 오랜 시간 갈고닦은 기량과 개성을 무대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며, 농악 특유의 신명과 각 지역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아내 관람객들로 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어 행사 후반에는 김제농악보존회의 특별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장단과 화려한 연출로 관람객들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리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번 농악발표회 결과, 금산면 ‘모악예술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김제시 대표 자격으로 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제45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김제농악이 세대를 잇는 문화유산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최

## 추가정정예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가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별로 살펴보면, 개최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어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과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며, 21일부터 26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내년도 주요 시책 방향과 핵심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15일간의 일정을 마듭짓게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돕는다

##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빈번한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대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사고 또는 질병

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농가들은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당 400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일정 비율(국비 50%, 도비 10%, 군비 25%)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15% 수

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질병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가축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내 축산농가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든든한 재해 대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 예방수칙 준수 철저히

고창군보건소가 해수 온도가 높은 가을철에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에 존재하는 비브리오팀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피부 상처가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특히 8~10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10월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간질한,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주요증상은 발열, 오한, 복통, 설사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피부 병변과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어패류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고창군보건소는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 자제 △어패류 조리 시 위생 관리 철저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가을철에도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위험이 지속되는 만큼 안심하지 말고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간질한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패류를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시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교통·안전·환경 관리 점검

부안군은 방상윤 부군수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부안붉은노을축제 현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제즈가 흐르는 노을, 와인이 머무는 해변’을 슬로건으로 레드와인페스타, 제4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붉은노을 재즈페스티벌, 스카이 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날 방상윤 부군수는 교통, 안전,

환경관리 등 중요 분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안전사고, 바가지 요금, 일회용품이 없는 3無 축제를 강조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방상윤 부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장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축제장 교통대책, 안전, 환경관리 등 철저히 준비해 군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양충모 시장 ‘취임 100일’ 청년과 소통

## 남원시장-청년기업가 간담회 정주여건 개선 논의·건의 수렴 ‘인구청년과’ 신설 지원 일원화

민선9기 취임 100일을 맞은 양충모 남원시장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기업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시정 발전 방안과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지난 8일 관내 청년기업가 및 창업가들을 초청해 ‘취임 100일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남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웨디이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충모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7월 1일 취임 후 100일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바탕으로 시장의 기초를 다지고, 모노레일 손실배상 문제 등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양 시장은 최근 확정된 국립의전원 유치 및 남원의료원의 국립 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승격 추진 성과를 설명하며 “그동안 지역의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의료 인프라가 대폭 확충됨



<사진=남원시>

에 따라 청년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율 토론에서 청년기업가들은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 환경 등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창업 공간 인프라 확충, 대학 연계 맞춤형 인력 채용, 공적사회와 시민 간 소통 환경 조성, 다각적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청년들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양충모 시장은 깊은 공감을 표시했고, 청년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청년과’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분산돼 있던 70여 개의 청

년 관련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창업지원·인큐베이팅·금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의전원 및 연계 기관을 통해 유입될 1,000여 명 이상의 신규 인구를 대비해 거주 시설(주택) 확충과 혁신학교 육성 등 자녀 교육 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충모 시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간담회 및 무제한 시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과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오는 16일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당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현장에서 수렴되는 다채로운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순창군>

## 순창 섬진강 카누·카약 체험교실 17일 개장

순창군은 수상레저문화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순창군 유등관광객에게도 좋은 체험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진강은 물이 맑고 유속이 완만해 카누, 카약 최적의 장소로 꼽히며 실제로 201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17,376명이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등 순창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체험 신청은 전화(섬진강수상레저연맹 063-652-6520)를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시간대별로 탑승인원 20명, 일 최대 100명 이 용가능하고 예약인원 미달 시에는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운영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청년맥주축제, 위생·안전 쟁기고 손님맞이

### 먹거리 부스 운영자 위생교육 경찰·소방 등 기관 합동 점검

완주군이 오는 16일 완주군청 대형 주차장에서 열리는 ‘2026년 완주청년맥주축제’를 앞두고, 먹거리 위생 관리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는 이번 축제는 공연과 행사, 체험 공간,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이에 발맞춰 지난 12일 군청 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먹거리 부스 운영자 15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 취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식품종류 예방을 위한 식품 취급·위생 관리 요령을 전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응대 요령도 함께 다뤘다.

아울러 축제 전날인 15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완주경찰서, 완주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먹거리 위생관리부터 행사장 안전점검까지 철저히 준비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제1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조례 88건 평가 5건 폐지 권고 상위법 불일치 등 10건 개정 필요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회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상호 위원장(부시장)과 9명의 위원이 참여해 7월 31일 기준 현행 남원시 조례 610개(시의회 소관 28건 포함) 중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88개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기본자료를 토대로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부터 조례 선정 사유를 청취하고 자체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그 결과 사문화, 중복에 따른 폐지 5건, 상위 법령 불일치 및 보완 필요에 따른 개정 10건, 그리고 위원회 운영 등 이행권고 12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의 의견 및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10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이며, 조례가 문서로만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외국인지원센터, VR체험 현장 안전 교육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30명과 함께 익산안전체험교육장을 찾아 산업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내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9개국 노동자들이 참여해 일터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직접 겪어보고 안전 수칙을 배웠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설명을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일터와 비슷한 환경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대처하도록 꾸몄다.

참여자들은 조립식 비계(시스템비계)와 고소작업대를 활용한 추락 사고 예방 체험을 비롯해 압연롤, 프레

스, 지게차 등 제조업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을 살펴며 농치기 쉬운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보안경과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직접 착용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가상현실(VR) 안전체험을 통해 산업현장의 사고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외국인근로자는 “설명만 듣는 것보다 직접 해 보니 위험한 상황이 훨씬 실감 났다”며 “앞으로는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 전후로 안전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요천생태습지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남원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의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특정 종목에 편중되었던 체육시설 지원을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시설의 편의성과 운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야구장 덕아웃 시설과 그린파크골프장 확장 및 직영 전환이 추진된다. 지난 2013년 준공된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은 현재 남원 13개 팀을 비롯해 인근 장수·함양 각 1개 팀 등 총 15개 동호회 팀이 리그전을 진행하는 요충지다. 시는 동호인들이 여름철 폭염이나 우천 시에도 쾌적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덕아웃을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이용 수요가 급증한 그린파크골프장은 기존 18홀에서 36홀로 규모를 2배 확장한다. 운영 방식 역시 기존 ‘골프협회 위탁·개방’ 형태에서 남원시 직접 운영체제로 전환한다.

시는 직영 전환과 함께 고령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골프카트를 도입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 및 물품을 확충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장류축제, ‘고추장 진상’ 뮤지컬·거리 행렬로 재현

제21회 순창장류축제에서 순창고추장의 임금님 진상 이야기를 뮤지컬과 한복 패션쇼, 전통 행렬로 선보이는 특별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사)한문화국제협회 순창군지회(지회장 서애숙)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에서 ‘세계를 하나로 잇는 K-컬처 in 순창’ 특별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창고추장의 역사와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결합한 문화행사로, 지역 주민과 청년,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참여해 순창의 전통문화를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축제 개막일인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주무대에서는 개막식 식전행사로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 뮤지컬과 궁중 한복 패션쇼가 열린다.

공연은 관객과 함께하는 미술쇼로 시작해 뮤지컬 ‘임금님의 입맛을 찾아라!’로 이어진다.

이어지는 순창고추장 진상 한복 패션쇼에서는 지역 주민과 청년, 외국인 유학생들이 화려한 궁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한국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과 순창의 맛을 선보인다.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축제장 일원에서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이 재현된다. 과거 순창고추장을 임금에게 진상하던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로, 취타대의 웅장한 연주와 농악대의 흥겨운 장단이 어우러진다. 행렬에는 지역 주민과 청년, 외국인 유학생들도 전통 한복을 입고 참여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환경미화원·운전원 특별안전교육 진행

완주군이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펼쳤다.

교육에서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중 끼임이나 깔림 등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시 안전수칙 길잡이, 환경미화원 재해 발생 현황과 종대재해 사례, 작업 유형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및 예방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수거차량 운행 및 생활폐기물 승·하차 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2명 이상이 같이 작업을 하고, 차량 및 중장비 운행 시 주변에 다른 작업자의 위험요인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교육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관내 사업장별, 업무형태별 맞춤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AI 겨울철 확산 막는다…실전 방역 훈련

### 농식품부·전북도 등 합동 진행 의심 신고 상황 가정 단계별 대응

완주군이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모의 방역 훈련을 마쳤다.

군은 13일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유관기관, 축산농가, 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2027년 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가상방역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완주소방서 등도 함께 했다.

훈련은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과의 실시간 토론 훈련과 완주군 현장 시연 있는 입체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신고된 상황을 가정해 의심 신고 접수와 초동 방역팀 투입부터 의심 농가 출입 통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설치와 운영, 살처분과 사체 처리, 방역 소독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무인통제초소의 차량 번호 인식 및 자동 개폐 시스템 시연을 비롯해 완주소방서의 초소 응수 긴급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무인기(드론) 활용 농장 입체 소독 등 기관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해 살펴며 실전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완주군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초기 차단 방역과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지역 축산 농가를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사랑상품권 11월부터 선할인 방식 전환

### 충전 즉시 12% 할인…편의성 제고 기존 충전금 이월내 사용·환불해야

순창군은 오는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캐시백’에서 ‘선할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품권을 충전한 뒤 사용하면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상품권 충전 시 할인 혜택이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순창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충전할 경우 이용자 계좌에서는 12% 할인된 8만 8천 원만 출금되고, 실제 상품권은 10만 원이 충전된다. 별도의 캐시백 적립이나 사용 절차 없이 충전 단

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환은 기존 캐시백 적립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이 할인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군은 할인 방식 전환에 따른 캐시백 혜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충전금의 사용과 환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월 1일부터 기존 캐시백 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 이전에 충전한 상품권을 이후에 사용하더라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군은 이용자들이 캐시백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충전금을 10월 31일까지 사용하거나 환불해야 한다.

군은 이용자들의 원활한 환불을 돕기 위해 17일부터 31일까지 환불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충전 시점의 상품권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에는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지역상품권 ‘작(chak)’ 앱 홈 화면에서 ‘환불받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할인 방식 전환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11월 1일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순창사랑상품권 관련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기획예산처 찾아 2027년 국비 확보 총력

### 지리산 치유원·국도국지도 등 국회 예산심의 앞두고 지원 건의

양충모 남원시장은 13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시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실 주요 간부들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국립 지리산 치유원 조성, △남원 일원

~산내 국지도 건설, △남원 이백~운봉 국도 건설 등 산립복지 기반 확충과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최근 남원시가 설립 지역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업단지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보수정비, △귀곡·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국가유산 보존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강미자 타당성심사과장 면담을 통해 △남원 주천~고기 국지도 건설사업의 타당성재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알뜰맘 재봉틀봉사단 폐현수막으로 가방 제작·기부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어 전주지역 작은도서관에 기증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13일 평화꿈틀작은도서관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원재순환 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알뜰맘 재봉틀봉사단'(회장 임소형)은 회원들이 직접 정성 들여 제작한 '도서대여용 가방' 100개를 기부했다.

봉사단원들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수거·재단해 튼튼하고 실용적인 가방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을 몸소 실천했다.

제작된 가방은 전주시공립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회장 유진아)를 통해 전주지역 작은도서관으로 전달돼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친환경 도서 대여용 가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소형 알뜰맘 재봉틀봉사단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들여 만든 가방이 도서관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경도 지키고, 지역사회에 온기도 전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지 기자



### 무주군개인택시조합 장학금 150만원 기부

무주군개인택시조합(조합장 최중길)이 지난 13일 제)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50만 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전했다.

최중길 무주군개인택시조합장은 "조합원들이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라며 "진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군민과 방문객들 편의를 도모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은 모두 30여 명으로, 지역 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각종 지역 행사 지원 등을 위한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총 450만의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제42회 고창군 군민의 장’ 수상자 선정

### 지역 발전·복지 증진 기여 김양기·황찬연·김우중 씨

고창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제42회 고창군 군민의 장' 수상자로 김양기, 황찬연(경우스님), 김우중씨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양기(성내면 노인회장)씨는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와 장학금 기탁 등을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왔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물품 지원과 경로당 환경 개선 등 경로효친 실천에 앞장



김양기

섰으며,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청소년 선도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황찬연(범명 경우, 선운사 주지)씨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가족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힘써왔다. 노인과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후원 물품 지원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했으며, 선운문화제와 산사음악회 등 전통문화·문화예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황찬연(경우스님)

김우중(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씨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며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와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 무장현 관광거점 조



김우중

성, 도시재생 등 주요 사업의 추진을 지원했으며, 또한 지역기업 육성과 전통 시장 활성화

를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고창군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군민의 장 수여를 통해 지역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의 공로를 기릴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장수 번암면자율방범대 경로위안잔치 성황리 개최

장수군 번암면자율방범대(대장 백영덕)는 지난 12일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31회 번암면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잔치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로의 달을 맞아 번암면 자율방범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방범대는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다과를 대접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행사장 안내부터 음식 봉사까지 직접 참여하며 행사 진행을 도왔다.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공경과 배려의 마음을 실천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주)성실, 전주시에 영유아 내의·조기 기부

(주)성실(대표 정태두)은 13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저소득 취약계층영유아를 위한 의류 4269벌(1억 1956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주)성실은 2012년 설립 이후 의류 및 섬유제품을 생산해 온 기업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부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부된 물품은 전주시 아동시설 등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태두 대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류를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강문경 공식 팬카페, 순창군에 500만원 기탁

### 가수의 고향 찾아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해

순창 출신 트로트 가수 강문경의 공식 팬카페 '뽕신사랑' 전라·전북방 회원들이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은 오는 15일 개막하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에서 강문경이 개막식 축하공연을 펼치는 것을 계

기로 마련됐다. 팬들은 응원하는 가수의 고향인 순창에 감사와 애정을 전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

팬카페 '뽕신사랑' 전라·전북방 관계자는 "가수를 향한 사랑이 무대 앞에서의 응원에 그치지 않고,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 화산면, 어르신 300명 대상 '사랑의 밥차'

완주군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호년·임미정)가 13일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완주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나눔을 펼쳤다.

행사 당일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완주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화산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손을 보며 음식 조리부터 배식, 어르신 이동 지원, 뒷정리까지

힘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간단한 복지 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식사 대접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대를 보살피고 응원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으로 거듭났다. 화산면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활동을 넓혀 지역의 온정을 나누는 자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전북에너지서비스, 정읍시에 1천만원 기탁

전북에너지서비스(대표 서경석)는 13일 지역인재 육성과 정읍교육 발전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련됐다.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자는 뜻을 담았다.

서경석 대표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자신의 역량을 마

음껏 펼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이사장은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키우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함께 해요 !

##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고 함께 실천 해요!



〈一事一言〉



늦은 벌초를 보며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추석이 지나고 가을빛이 깊어 가던 어느 날이었다. 선산의 종종 묘역을 지나는데 떨썹이 떨어진 산기슭에서 예초기를 조립하는 젊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 곁에는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주변의 묘소들은 이미 벌초를 마친 뒤였지만, 그들이 찾아온 봉분은 무성한 풀과 잡목에 덮여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봉분도 많이 내려앉아 있었다.

추석도 지났는데 이제야 벌초를 하러 왔느냐고 물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곳은 할머니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묘소였다. 아들 없이 외동딸만 두었던 집안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묘소를 돌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다. 예초기를 준비하던 젊은이는 할머니의 손자였다. 손자에게는 먼 외가의 조상이지만, 할머니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묘소였다.

할머니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일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부탁에 손자가 함께 길을 나섰다고 했다. 명절 전에 벌초를 마쳐야 한다는 오랜 관습도 그날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에게는 살아생전 아버지가 잠든 자리를 다시 찾아보는 일이 더 간절했을 테니까.

풀숲에 묻혀 있던 봉분 앞에서 예초기를 준비하는 손자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를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쳐 갔다. 같은 봉분을 바라보면서도 두 사람에게 그곳은 서로 다른 세월과 기억이 머무는 자리였다.

요즘은 부모의 묘소조차 직접 벌초하기 어려워 전문업체에 맡기는 일이 흔해졌다. 자손들이 먼 도시에 흩어져 살고,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산소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한때 집안의 중요한 연례행사였던 벌초가 이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 현실을 두고 효성이 부족해졌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묘소를 찾아오는 발길이 뜸해지는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다. 세대가 바뀌면서 조상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후손들도 생겨난다. 자손이 없는 묘소는 세월이 흐를수록 풀숲에 묻히고,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는 자리로 남는다. 살아 있는 이와 고인이 된 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피하기 어려운 시대의 변화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고인을 모시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봉분을 세우고 때마다 벌초하는 풍습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자연장이나 작은 표지석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이 더 널리 자리 잡

고, 이미 조성된 묘소를 정비하려는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와 행정적 지원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묘소가 후손에게 무거운 의무로만 남지 않았으면 한다. 풀을 베고 봉분을 다듬는 수고에 지쳐 고인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든 마음이 내킬 때 찾아와 잠시 머물며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곳, 그리운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 되었으면 한다.

생각해 보면 봉분을 높이 쌓고 풀 한 포기 없이 말끔하게 벌초했다고 해서 고인을 향한 마음까지 깊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묘소를 돌보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날 산기슭에서 만난 할머니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고, 손자는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오래 묵은 풀을 베어내는 동안,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한 봉분 앞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의시

흔적도 없이 지나갈 것 / 황지우

아내가 말했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당신이 지독한 뜻을 알거나 해?”  
꽤중 시계가 두 번을 쳤을 때  
울리는 실내: 그는 이 삶이 담긴  
연약한 막을 또 느꼈다  
2미터만 걸어가면 가스벨브가 있고  
3미터만 걸어가면 15층 베란다가 있다  
지나가기 전에 흔적을 지울 것

꽤중 시계가 들어가서  
아직도 펴고 있는 거울에 담긴  
30여평의 삶 지나치게 고요한 거울  
아내에게 말했었다:  
”그래,내 삶이 내 맘대로 안 돼”  
서가엔 마르크시즘과 관련된 책들이  
절반도 넘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  
석유토브 위 주전자는 김을 폭폭 내쉬고

시인 약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학과지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나는너다' '게 눈속의 연꽃'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문학상과 제36회 현대문학상, 2006년 옥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사설

조지훈 시장 취임 100일,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전주 대 전환을 위한 4대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민 중심 행정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재정 여건이다. 전주 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조 시장이 제시한 피지컬 AI·J밸리 조성과 문화산업 기반 확충, 복지 확대 등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사업들이다. 재정 정상화와 대규모 신규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치밀한 재원 조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국비 확보 가능성과 시비 부담 규모, 연차별 투자계획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히 피지컬 AI·J밸리 조성은 전주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은 부지 확보와 기업 유치, 기반시설 구축이 맞물려야 실현된다.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 방안도 명확해야 한다. 구호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도 요구된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이미 오랜 기간 논의돼 온 과제들이다. 이를 새로운 시정의 성과처럼 포장하기보다 그동안 무엇이 걸림돌이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반복되는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다.

취임 100일은 시정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그렇다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까지 검증 없이 받아들이 수는 없다. 전주시는 4대 청사진의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일정, 성과 지표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시장의 비전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느냐로 평가받는다. 취임 100일의 청사진이 임기 내내 되풀이되는 구호로 남아서는 안 된다. 전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약속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행정의 책임과 능력이다.

독자투고

‘노쇼’를 가장한 변종 사기, 자영업자 주의 당부



최근 자영업자를 노린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예약 후 연락 없이 오지 않는 소극적 영업 방해에 그쳤다면, 최근의 노쇼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로 진화했다.

대표적인 수법은 단체 예약을 핑계로 대량의 음식이나 물품을 주문한 뒤, “행사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대금을 선입금 하도록 유도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쇼 사기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연연한 범죄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낯선 단체 예약 시 반드시 일정 금액의 예약금을 받거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대리 구매나 타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해야 한다.

만약 노쇼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예약 내역, 대화록,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제보가 범죄를 막는 가장 큰 예방책이다.

김제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위 김현

|                                                                                                          |                    |                                                                            |                    |
|----------------------------------------------------------------------------------------------------------|--------------------|----------------------------------------------------------------------------|--------------------|
| <div><div><div>JBT</div><div>전북타임스</div><div>JeonBuk Times</div></div><div>2026년 10월 14일 수요일</div></div> |                    |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팔간우)54990<br>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 회장 신영배                                                                                                   |                    | 발행·편집인 송민순                                                                 |                    |
| 편집국장 장정철                                                                                                 |                    | 인쇄인 김은주                                                                    |                    |
| 대표전화 282-9601                                                                                            |                    | 입무국 팩스 282-9604                                                            |                    |
| 편집국 팩스 283-8800                                                                                          |                    |                                                                            |                    |
| 전주시사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부안지국 010-7247-3947 |
| 중앙지사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
| 인후지사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원주지국 010-3672-0308 |
| 팔백지사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626-6049                                                         |                    |
| 송전지사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83                                                         |                    |
|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 노인시설유지보수단

# 어르신 손길로 되살아난 낡은 경로당 현판

### 전주 경로당 100곳 이상 현판 보수 전문성과 경험 살려 지역사회에 활력

낡고 빛바랜 경로당 현판이 어르신들의 손길  
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오랜 세월 마을의 사  
랑방 역할을 해온 경로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의 노  
인시설유지보수단이다.

센터는 2023년부터 전주시 관내 경로당의  
목재 현판을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 10월 기준 100곳 이상의 경로당 현판을  
새롭게 단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인시설유지보수단은 2022년 2월부터 시행  
된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남성 어르신 30명이 참여하고 있  
다.

2~3명씩 총 12개 팀으로 구성된 전주시 관내  
610곳의 경로당을 방문하며 전기·가스·보일러  
점검, 주방 위생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경로당  
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판 보수 활동은 일자리 현장에서 발견한 작  
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인후동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던 8팀은 오랜  
시간 야외에 설치돼 비바람과 햇볕에 노출된 목  
재 현판 상당수가 퇴색하고 낡아 있는 것을 발  
견했다.

팀원 중 이일수 참여자는 광고사를 운영한 경  
험과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있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현판 보수  
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작업은 낡은 현판의 표면을 정리하고 목재를  
다듬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황연가루와 니스를 활용해 바탕을 정돈  
하고, 경로당 이름을 다시 도색한 뒤 마감 작업

을 거쳐 현판을 제자리에 설치한다.

현판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통상 2~3일이 소요  
된다.

하루 3시간의 근무시간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  
야 하는 데다 야외 작업 특성상 날씨의 영향도  
커 세심한 일정 조율과 정성이 필요하다.

센터는 그라인더와 페인트, 니스, 붓 등 필요한  
작업용품을 지원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후동 1·2·3동 일대에서 시작한 활  
동이 경로당 관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전주시 관내 경로당으로 확대됐다.

경로당과 함께 마을회관, 관리사무소, 아파트  
자치회 등의 현판을 추가로 보수하는 사례도 이  
어지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100곳 이상의 현판을 보  
수했다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낡은 시설을 개선해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보  
다 단정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참여자들  
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기술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다.

특히 참여자의 과거 직업 경험과 기술이 새로  
운 노인일자리 활동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노  
인일자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  
다.

(사)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는 앞으로  
도 참여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활동을 통해 노인일자  
리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판에 새겨진 경로당 이름을 다시 선명하게  
되살리는 어르신들의 손길. 그 손길에는 오랜 경  
험과 전문성은 물론, 지역사회를 아끼는 마음과  
일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다.

/장정철 기자



#### 미니인터뷰 / 송상엽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장

Q. 노인시설유지보수단의 경로당 현판 보  
수 사업이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성과  
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이번 성과는 단순히 낡은 현판 100곳 이  
상을 보수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전문기술을 지  
역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특히 과거 광고업에 종사했던 참여자의 전  
문성이 노인일자리와 만나 지역사회에 실질  
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발전했다는 점이  
뜻깊습니다.

어르신들의 역량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자산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  
각합니다.

Q.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말  
씀해 주십시오.

A. 노인일자리는 참여 어르신들에게 경제  
적 도움을 드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과 자긍심  
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의 경험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  
다. 노인시설유지보수단이 경로당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어르신  
들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미니인터뷰 / 이일수 노인시설유지보수단 참여자

Q. 전주시 관내 경로당 현판 보수 업무를 전  
담하면서 100곳 이상의 현판을 새롭게 단장  
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처음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낡고 색이 바  
랜 현판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  
다. 오랫동안 마을 어르신들이 이용해 온 공  
간인데, 경로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현  
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광고업을 운영했던 경험과 기술을 살려 이런  
현판들을 직접 고쳐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판은 한 번 칠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  
다. 낡은 표면을 다듬고 여러 차례 칠을 한 뒤  
글씨를 다시 살리고 마감하는 과정까지 정성

을 들여야 합니다. 날씨에 따라 작업이 늦어  
지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지만, 완성된 현판  
을 다시 걸었을 때의 기쁨은 큼니다.

특히 경로당 이름이 선명하게 되살아난 모  
습을 보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  
면 그동안의 수고가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하  
나둘 작업을 이어오다 100곳이 넘는 경로당  
의 현판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뿌듯  
하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가진 기술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  
시는 공간을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성을 다해 현판을 보수하고 싶  
습니다.